

## 합의적 질적 연구(CQR) 방법을 활용한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학업적응에 관한 연구: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중심으로\*

한 지 민   서 정 길   용 정 순<sup>†</sup>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는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의 학업적응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학업적응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위논문 작성을 완료한 석사수료생 및 졸업생 2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GI)을 실시하였으며, 추출된 자료는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촉진요인 영역에서는 총 12개의 상위범주와 30개의 하위범주, 저해요인에서는 총 11개의 상위범주와 28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진학 준비 활동, 목표설정 및 실행, 학습 동기 관리 등과 같은 개별적 학업 관련 활동, 동료의 협력과 지원, 선배의 도움, 교수의 지도 방식 및 태도와 같은 대학원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연구실/연구실 외부 학술 활동, 그리고 외부 환경 및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들이 촉진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이는 대학원 학업적응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풍부한 지원 또한 중요함을 시사한다. 저해요인으로는 경험 및 역량 부족, 연구 및 논문 작성의 어려움, 교수의 지도 방식 및 태도, 동료와의 교류 부족, 연구실 체계 및 문화, 외부환경 및 시스템 등의 내용들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낯선 대학원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를 진행하는 것, 그리고 아직 미숙한 연구경험과 역량으로 인해 연구와 논문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대학원 생활의 가장 큰 난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교수의 지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교수 중심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리고 개인적인 요소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원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석사과정생들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다양한 촉진/저해 요인들을 밝혀냄으로써 대학원 학업적응의 양적연구를 위한 단초를 제공하고 대학원 교육의 질적 성장과 실질적인 학업적응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대학원 학업적응, FGI, 학업적응 촉진요인, 학업적응 방해요인

\* 본 연구의 FGI 인터뷰는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용정순,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초빙교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thfqldkf@skku.edu](mailto:thfqldkf@skku.edu)

Copyright ©2024, Korean Association of School Psycholog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고등교육의 보편화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학원 교육에 요구되는 역할과 수준이 변화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대학 진학률은 71.9%로 대다수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서, 대학원은 자연스럽게 엘리트 교육과 평생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 또한, AI를 비롯한 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는 지식 창출과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대학원은 이러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기능도 수행하게 되었다(김미란, 2020).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정부에서도 1999년부터 고등교육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BK21 사업을 시행하며 대학원 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BK21 사업은 대학원의 연구역량 강화와 지원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허정, 이길재, 2020). 사회적 변화와 제도적 노력이 맞물린 결과는 급증한 대학원생 수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학원 재적 학생은 1980년 33,939명에서 2022년 333,907명으로 약 9.8배 증가하였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

BK21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대학원 교육 정책이 도입되면서 과거에 비해 논문 출판이나 학회 발표와 같은 연구 성과나 대학원생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양적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성장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 특성에 따라 분화되지 않은 학위과정, 대학원 간 편차, 대학원 평가 시스템 부족, 사회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등으로 인한 다양한

질적 문제점들이 지적받고 있다(김영재, 2015; 이수정, 김승정, 2020).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학원의 기능 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의 수요자인 대학원생들의 학업 경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학원 시스템 체계나 제도에 관련된 거시적 관점의 연구는 정부 과제의 일환으로 비교적 상세히 연구되어 온 편이지만(김미란, 2020; 송창용 등, 2011; 송창용 등, 2016; 송창용 등, 2013; 이정미, 2013), 이에 비해 미시적 관점에서 국내 대학원생의 경험 자체를 다룬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고등교육의 수요자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대학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대학원생의 경험을 탐색하는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승정, 2021). 특히, 심리과학 분야에서 대학원생들의 경험을 다룬 연구는 희박하며, 이마저도 외국인 유학생, 육아나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대학원생, 여자 대학원생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거나 특정 전공 대학원생들에 국한되어 있다(성윤희, 정주리, 2019; 오혜영 등, 2019; 진미진, 손은정, 2021).

따라서, 대학생이나 특수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국내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교육과 학습 경험을 심도 있게 다루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이정미, 2013). 학업 경험 중 특히 학업적응은 학업성취, 학업만족, 학업지속, 학업중단 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유경훈, 2013; Credé & Niehorster, 2012), 실제로 학생들의 교육 경험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주요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 대학생들의 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인 대학생생활적응 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개발한 Baker와 Siryk(1984)에 따르면

‘학업적응’은 수업이나 연구와 같은 학업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관계, 학과 등 환경에 대한 적응을 의미한다. Baker와 Siryk(1984)의 연구에서 대학원생들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개념적으로는 대학원생들의 학업적응에도 유사한 적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업적응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Credé & Niehorster(2012)에 따르면 학업적응과 학업지속은 높은 상관과 예측력을 보였으며, 학업적응과 학업지속 간의 관계는 학업중단 과정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와 이론적 모형에 반영되어 왔다(예: Bean, 1980; Bean & Metzner, 1985; Pascarella, 1980). 현실적으로도, 국내 대학원 과정 중도탈락률이 1990년대 이후 꾸준히 5-6%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2), 학업지속과 학업중단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업적응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대학원 경험과 관련된 국내 연구에서도 학업적응은 주요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박미숙 등, 2014; 신지원, 2021; 윤소정 등, 2011; 조명현, 나진경, 2017). 박미숙 등(2014)은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대학원 생활에 적응하는 데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을 질적 연구를 통해 탐색하였다. 외국인 대학원생들은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정서적 적응, 환경적 적응 등의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신지원(2021)은 코로나-19 이후 입학한 석사과정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생들의 온라인 학업적응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불안함, 답답함, 고립감으로 인한 부정적 시선’이 대학원생 온라인 학업적응과정의 중심현상이라는 것을 밝혔다. 윤소정 등(2011)은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귀인성향, 스트레스,

대처효능감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으며, 대처효능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내적 귀인성향이 높을수록 학업적응을 잘한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명현, 나진경(2017)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서표현성이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응 간 부적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국내 대학원생의 학업적응 연구가 진행되어오기는 했으나, 특수한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거나 연구자들이 상정한 특정 변수와 학업적응 간의 영향만을 살펴본 연구라는 한계가 있다.

한편,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학업적응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만큼 다각적인 관점에서의 ‘학업적응’에 대한 정의가 존재한다.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윤소정 등(2011)에서는 학업적응이 ‘수업이나 시험과 같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적 요구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 정도’라 정의되었다. 박미숙 등(2014)은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학업적응(학교생활 적응)은 ‘학교의 환경과 상호관계 속에서 자신이 적합하게 관계하여 자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적응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차승봉, 박혜진(2022)은 학업적응을 ‘대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환경과 다양한 요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정도(Credé & Niehorster, 2012)’라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Baker와 Siryk(1984)의 대학생생활적응 척도를 살펴보면, 대학에서의 적응은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학문적 적응으로 학습자에게 주어진 학업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에 관련된 것이다. 두 번째는 사회적 적응으로 교수, 동료와 같은 대학 내의 대인 관계, 소통, 관리 능력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개인-정서적 적응으로 개인이 경험

하는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관련된 차원이다. 마지막은 대학 애착 측면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학업 목표에 대한 몰입도 등을 포함한다. 학업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의 학업적응’을 대학원이라는 환경 속에서 자신을 적절하게 조절하며, 주어지는 학업과제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개인적 차원의 적응과, 대인관계나 학과와의 소통을 비롯한 사회적 적응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원 교육의 질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 하나인 사용자 근거 접근(user-based approach, Garvin, 1988)에 따라 대학원생의 관점에서 학업 경험, 특히 학업적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Lewis와 Smith(1994)에 따르면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 사용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향하는 현재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국내 대학원 교육은 여전히 공급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요자인 대학원생 입장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김승정, 2021) 사용자 근거 접근에 기반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업적응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 교육과정을 경험하는 주체인 대학원생들이 질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학교 교육의 효과나 만족도를 분석한 많은 연구가 투입-산출 모형에 기반하여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는 주로 학생들이 입학 전부터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인차 요인 또는 학교의 고유한 특성이 학생들의 졸업 성과 또는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신현석

등(2008)은 교육 부문, 연구 부문, 행정서비스 부문, 대학 특성 요인 등의 다양한 요인들을 투입요인, 대학원 교육의 질을 산출요인으로 설정하고 대학원생 대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정미(2013)는 성별, 연령, 부모의 교육 수준, 대학원 입학 동기 등의 개인수준 요인들이 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대학원 연구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투입-산출 모형은 학생들의 개인차 요인 또는 환경적 요인이 교육 경험에 질적으로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성립된다. 그러나 동일 교육과정이라도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지닌 특성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성과에도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남궁지영 등, 2022). 따라서,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 경험을 하는지, 즉 투입과 산출 사이에 “과정” 단계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투입-산출 모형 기반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진 양적 변수들 이외에 어떠한 요인들이 학업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석사과정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학원생의 학업적응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석사과정 진학은 ‘학생’에서 ‘연구자’로 새로운 정체성과 적응 과정을 거치게 되는 시작점으로 석사과정에서 박사과정으로의 전환보다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수반할 가능성이 크다(임희진 등, 2016). 하지만, 석사과정생들을 위한 효과적이고 만족도 높은 학업적응 지침이나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석사과정생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탐색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연구와 논문작성 경험이 거

의 없고, 대학원 학업과 생활이 처음인 석사 대학원생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은 대학원 교육 수요자인 대학원생보다 공급자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김승정, 2021). 또한 다수의 관련 연구들이 투입-과정-산출 단계 중 투입과 산출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양적 변수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예: 신현석 등, 2008; 이정미, 20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원생의 학업적응 과정을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의 경험을 범주화하고 그 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탐색할 수 있는(김길문, 정남운, 2004)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방법이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또한 합의적 질적 연구는 여러 평정자의 합의 과정과 감수 과정을 통해 질적 연구의 주관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들 또한 대학원 학업 과정을 경험한 주체이기 때문에 편견이나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연구방법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사과정생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진행하고, 탐색적 분석방법인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학업적응에 도움이 되었던 촉진요인과 방해가 되었던 저해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학업적응 과정에서 촉진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둘째,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학업적응 과정에서 저해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방 법

### 연구 참가자 및 모집

본 연구는 유사한 선행 연구들을(김민선 등 2016; Yuan & Zhang, 2017) 기반으로 석사과정 동안의 전반적 생활환경과 연구 경험 등을 탐색하기 위해 이를 충분히 경험한 참가자들을 확보하고자 1) 석사 4학기 정규과정을 모두 경험한 2) 석사 졸업 후 5년 이내인 참가자들만을 모집하였다. 연구는 수도권 소재의 대규모 연구중심대학에서 이루어졌으며, 대학 홈페이지에 연구 개요가 포함된 공고문을 올려 기준에 부합하는 참가자들을 모집하였다. 참가자들이 사전 설문에 응답한 희망 참여 시간대와 전공을 기준으로 일정을 조정된 뒤 최종적으로 선정된 참가자들에게 다시 연락을 취해 참여를 요청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약 90분의 집단 면접에 참석하고 미리 안내되었던 소정의 사례를 받았다. 연구에 실제로 참여한 참가자들은 총 29명으로, 성별은 남성 10명, 여성 19명, 소속 대학원은 특수·전문대학원 6명, 일반대학원 23명이었다. 소속 계열은 인문사회계열 16명, 자연과학계열 13명이었다. Hill et al. (1997)은 모집한 전체 자료를 분석할 때 예상치 않은 변산이나 하위 집단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을 고려하여 집단별로 최소 8명에서 15명의 충분한 참가자를 모집할 것을 제안한다. 이에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의 석사과정 학업 경험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열마다 최소 8명 이상의 참가자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소속대학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에 의해 검토되고 승인되었다(IRB 승인 번호: SKKU 2022-02-001).

### 자료 수집: 면접 절차 및 내용

본 연구의 목적과 관련된 선행문헌을 고려하여 대학원 진학 동기, 대학원 학업적응 촉진 및 저해요소, 기수별 과업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였다. 초점집단 면접은 소수의 참가자로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대해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Morgan, 1998). 초점집단은 특정 주제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참가자들로 구성되고, 참가자들은 공통된 주제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다양한 관점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경험을 다른 시각과 비교하고 성찰 및 해석하여 제시하게 된다. 이는 연구 주제를 다층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Vaughn et al., 1996). 본 연구는 6개의 초점집단을 대상으로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각 집단은 최소 4명에서 최대 6명의 참가자로 구성되었다. 초점집단의 적정 참가자수는 연구자나 연구 주제에 따라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 4명에서 12명의 참가자를 적절한 범위로 제시하므로(Krueger, 2014; Morgan, 1996), 본 연구에서 모집한 집단별 참가자수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 질문지는 세 명의 연구자가 각자 관련 선행연구(이경아 등, 2008; Li et al., 2018)를 기반으로 예비문항들을 구상한 뒤, 소요시간, 질문의 명확성, 중요도를 기준으로 논의를 거쳐 연구 목적에 보다 적합한 개방형 문항들로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이후 해당 문항들을 중심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하여 4명의 참가자로 구성된 집단을 대상으로 예비면접을 진행하였다. 예비 면접에는 두 명의 연구자가 주진행자와 보조진행자로 참여하였으며 전반적인 진행 흐름을 서로 보완하

고, 문항의 적합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세 명의 연구자가 다시 논의를 진행한 뒤, 최종 문항들을 확정하였다. 면접의 주요 질문은 표 1에 제시하였다.

면접은 2022년 2월에 진행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면접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반적인 석사과정 경험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학기 중보다는 방학 기간이 면접을 진행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연구 참여 하루 전, 연구 일시, 온라인 회의 링크, 준비 사항, 주요 질문 등이 안내된 문자를 발송하여 연구 참가자들이 사전에 관련 경험을 떠올리며 응답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였다. 면접은 심리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다수의 온라인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었다. 진행자는 면접 전 질적 연구 워크숍에 참여하여 원활한 면접 진행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숙지하였다.

면접은 참가자들이 온라인 회의에 접속한 뒤 연구의 목적과 참가동의서에 대해 안내하며 시작하였다. 참가동의서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 유지와 면접 녹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모든 참가자들의 동의를 거쳐 녹화를 시작하였다. 간략한 인사 및 자기소개를 통해 참가자들이 편안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후 주요 질문들을 제시했으며, 이후에는 참가자들로부터 더 풍부한 설명을 이끌어내기 위해 맥락에 맞는 후속 질문을 하였다. 면접은 평균 80분 소요되었으며, 모든 참가자들의 발언 시간이 비슷하도록 유도하였다. 면접이 종료된 후에는 참가자들에게 전반적인 연구 진행 및 온라인 화상 진행 방식에 대한 느낌과 추가 면접에 대한 동의

표 1. 면접 주요 질문

분류	질문 내용
대학원 진학 동기 및 목표	· 여러분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학업적응 촉진요인	· 어떠한 요소들이 대학원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개인적인 특성, 주위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해주시십시오. 개인의 경험이 아닌 주위 동료의 경험을 말씀해주시어도 됩니다.
학업적응 저해요인	· 대학원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개인적 고민, 학업에서의 문제, 외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해주시십시오. 개인의 경험이 아닌 주위 동료의 경험을 말씀해주시어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도 말씀해주시십시오.
졸업요건 및 기수별 과업	· 본인이 소속된 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은 무엇입니까? · 학위 논문 작성은 각 기수별로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 학위 논문 이외에 각 기수별로 어떠한 문제나 과제들이 있었습니까?

등을 묻는 사후질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면접을 진행한 연구자가 녹화 자료들을 전사하고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은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근거로 현상을 기술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세 명 이상의 연구자들이 자료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추출하여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편향된 해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다양한 견해를 수렴할 수 있다. 또한 분석 연구진 외 전문가가 감수 절차를 통해 추가로 분석 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Hill, 1990; Hill, 2016). 분석 전, 면접을 진행한 연구자를 포함하여 세 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1차로 전사록을 읽고, 분석 대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체적으로 응답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참가

자들은 학위논문 작성 여부에 따라 지도교수와의 상호작용이나 연구 및 논문작성 경험에서 질적으로 다른 학업 과정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참가자들의 소속 계열에 따른 학업 경험의 촉진요인과 방해요인 응답은 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연구 목적과 참가자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대학원이나 계열과 전일제 여부와 상관없이 ‘학위논문을 작성한’ 참가자들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합의적 질적 연구가 질적으로 유사한 참가자 자료 수집을 지향하며(Hill & Lambert, 2004), 연구 목적과 관련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더 나아가, 구체적인 분석 대상을 설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석 대상이 된 참가자들은 총 23명으로, 구체적인

표 2. 참가자의 인구 사회학적 정보

참가자번호	대학원유형	계열	전공	성별	졸업시기
3	일반	인문사회	동아시아학과	여	2018년 2월
4	일반	인문사회	인공지능융합학과	여	2022년 2월
5	일반	인문사회	교육학과	여	2022년 2월
6	일반	인문사회	인공지능융합학과	남	2022년 2월
12	일반	인문사회	소비자학과	여	2022년 2월
13	일반	인문사회	독어독문학과	여	2020년 2월
14	일반	인문사회	유학동양한국철학과	여	2022년 2월
23	일반	인문사회	사회복지학과	여	2017년 8월
1	전문	인문사회	행정학과	남	2016년 2월
11	특수	인문사회	교육학과	여	2018년 8월
15	일반	자연과학	의학과	여	2020년 2월
16	일반	자연과학	소프트웨어학과	남	2022년 2월
17	일반	자연과학	기계공학과	남	2022년 2월
18	일반	자연과학	산업공학과	여	2018년 8월
19	일반	자연과학	데이터사이언스융합학과	남	2022년 2월
20	일반	자연과학	화학학과	여	2022년 2월
21	일반	자연과학	의료기기산업학과	여	2022년 2월
22	일반	자연과학	제약산업학과	여	2022년 2월
7	일반	자연과학	산업공학과	남	2022년 2월
8	일반	자연과학	고분자공학과	남	2020년 2월
9	일반	자연과학	제약산업학과	여	2022년 2월
10	일반	자연과학	에너지공학과	여	2022년 2월
2	특수	자연과학	정보보호학과	남	2022년 2월

인구 사회학적 정보는 표 2에 제시하였다.

#### 연구자의 기대와 편견 및 처리

수집된 자료를 합의적 질적 분석하기 위해 세 명의 연구자가 한 팀을 이루었다. 성별은 남성 한 명, 여성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연구자는 박사졸업 후 약 10년이 경과한 연구자로, 석사 대학원생들과 1:1 코칭을 하고 있어 다양한 전공 대학원생들의 어려움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연구자였다. 다른 연구자는 국내 대학에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모두 마쳤으며, 박사 졸업 후 약 3년이 지난 상태였다. 최근까지 석사과정 대학원생들과



긴밀히 협업해 온 경험이 풍부한 이점을 지녔으나, 주로 연구실 관리자 입장에서 과정생들과 소통해 온 만큼 연구자 관점으로 참가자들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석사과정을 수료한 지 1년 이내의 연구자로, 참가자들의 입장에 공감하며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 편향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였다. 세 연구자는 모두 질적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경험이 있었으며, 합의적 질적 분석을 정교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연구 진행 전 질적 연구 분석 워크숍에 참여하고, 관련 문헌을 검토하는 등 방법론을 재숙지하였다. 또한, 자료를 분석하기 전 각자 연구에 대한 기대와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본 뒤, 분석 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충분히 논의하였다. 분석을 진행하는 중에도 세 명의 연구자는 서로의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을 통해 충분한 성찰 및 논의 과정을 거쳤다.

#### 영역(Domains), 핵심개념(Core idea) 코딩과 교차분석(Cross analysis)

분석팀은 먼저 6개 그룹의 전사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자료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파악하였다. 전체 자료에 익숙해진 뒤, 무작위로 2개의 전사록을 선택하여 한 줄씩 함께 읽어 가며 분석에 대한 논의와 합의를 진행하였다. 분석은 영역 코딩, 핵심개념 코딩, 교차분석 순으로 이루어졌다. 분석의 첫 단계로 각자 영역을 코딩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역 코딩은 수집된 자료를 유사한 주제로 분류하는 과정이다. 합의된 영역으로 분류를 마치고, 응답 내용들을 동일한 단위로 추출하여, 핵심

개념을 요약하였다. 두 명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핵심개념을 요약하여 자료화한 뒤, 나머지 한 명의 연구자가 두 자료를 동시에 보며, 유사한 의견일 경우 해당 핵심개념으로 합의된 결론을 내리고, 의견이 다를 경우 표시해 두었다가 합의에 이를 때까지 다시 논의하였다. 핵심개념은 연구자의 해석을 최소화하고, 원자료의 내용에 최대한 가깝게 요약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후 핵심개념들 간 유사성을 파악하고, 구조화하여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들은 각자 1차적으로 범주화한 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서로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범주와 하위 범주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각 범주들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범주별 빈도수를 확인하였다. Hill(2016)에 따르면 한 범주에 모든 참가자 또는 1명만을 제외한 모든 참가자가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general)’, 절반 이상의 참가자 사례가 해당하는 경우 ‘전형적(typical)’, 적어도 2명 이상의 참가자에서 절반에 이르는 참가자의 사례가 포함되는 경우 ‘변동적(variant)’, 표본이 15보다 클 때 참가자 2-3명의 사례가 해당하는 경우 ‘드문(rare)’, 한 사례에만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인 범주로 판단하여 삭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23명의 참가자 중, 모든 참가자 또는 22명의 참가자가 보고한 경우 ‘일반적’, 12명에서 21명이 보고한 범주는 ‘전형적’, 4명에서 11명이 보고한 경우 ‘변동적’, 2명 또는 3명의 참가자가 보고한 범주는 ‘드문’으로 제시하였다.

#### 감수자 및 감수과정

세 명의 연구자가 도출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의 범주 수준, 범주명, 범주분류가 적절하

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명의 교육학 전공 연구자들의 감수를 진행했다. 한 명은 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연구자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였으며, 다른 한 명은 박사 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된 연구자로 내러티브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였다. 연구자들은 전문가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안내하고, 문장단위로 구분된 집단면접 전사록과 범주 분류표를 송부하여 감수를 받았으며, 두 명의 전문가의 상의 없이 독립적 관점에서 감수를 진행했다. 감수 완료 후, 연구자들은 감수내용을 바탕으로 범주명과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수정하고, 범주들을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최종 범주분류를 완성하였다.

## 결 과

수도권 소재 대규모 연구중심대학의 대학원 석사 수료 또는 졸업생 23명의 면접 내용을 대상으로 합의적 질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 2개 영역과 23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 영역 1: 촉진요인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학업적응에 대한 촉진요인 영역에서는 12개의 상위범주와 30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요약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범주별로 아래 설명하였다.

#### 동기의 협력과 지원

해당 범주에서 정의하는 동기는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학업적응 과정을 거친 동료들을

일컫는다. 반드시 동일한 학기에 입학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학업적응 경험을 공유한 코호트(cohort)를 말한다. 저해요인 영역과 달리 촉진요인 영역에서는 동기와 선배의 역할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두 범주를 별개로 생성하였다. ‘동기의 정서적 지원’, ‘동기와의 학술 교류 및 협력’ 등의 하위범주가 이에 포함되었다.

“... 좀 멘탈이 무너지는 일들도 많았는데 그때마다 좀 서로 이제 형들 누나들 그리고 동기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지지를 해줬어요) 저만 어려운 줄 알았는데 그들도 어려워하고 있고 서로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정신적인 지지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참가자 3, ‘동기의 정서적 지원’)

“... 동기를 통해서 서로 이제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 교환 외에도 다른 예를 들어서 공부할 때에도 학업 진행함에도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 가지고 ... 동기에게 가장 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참가자 12, ‘동기와의 학술 교류 및 협력’)

#### 교수, 선배와의 상호작용

교수의 지도방식과 태도, 선배의 도움과 같이 일방향적인 지원 외에도 교수, 선배와의 상호적인 작용 및 관계 또한 학업적응 촉진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학업과 관련하여 교수, 선배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에 더하여 생활 측면의 비학술적 교류 또한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교수, 선배와의 활발한 소통’, ‘교수, 선배와의 원만

표 3. 영역 1: 촉진요인

범주	하위범주	응답빈도
동료의 협력과 지원	동기의 정서적 지원	변동적(10)
	동기와의 학술 교류 및 협력	
교수, 선배와의 상호작용	교수, 선배와의 활발한 소통	변동적(8)
	교수, 선배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	
선배의 도움	선배의 조언과 위로	변동적(7)
	선배와의 공동 연구 활동에 참여	
	선배의 학술적 지원/도움	
교수의 지도 방식 및 태도	학생에 대한 교수의 배려와 직접적인 도움	변동적(4)
	교수의 체계적이고 지지적인 지도 방식	
	본받을 만한 교수의 태도와 행동	
적절한 연구주제 탐색 및 선정 활동	적절한 연구주제 선정의 중요성	변동적(5)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의 연구주제 탐색	
연구실 학술 활동 및 지식 공유	연구실 동료들과의 정기적 학술 활동	변동적(6)
	연구실에 축적된 지식과 정보 활용	
연구실 외부 학술 활동	학회 참여/발표	변동적(7)
	타대학 학생들과의 학술 교류	
	연구 용역 참여	
	정규과정 외 강의 수강	
학습 동기 관리	공부에 대한 흥미	변동적(5)
	목표를 이루려는 의지	
목표설정 및 실행	진학 목적에 대한 고민	변동적(8)
	구체적인 목표설정 및 자기관리	
필요한 역량 파악 및 개발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한 이해	변동적(4)
	대학원 생활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이해	
진학 준비 활동	사전 연락을 통한 대학원 정보 탐색	변동적(4)
	입학 전 연구 활동 참여	
외부 환경 및 시스템	다양한 강좌	변동적(5)
	졸업요건 다양화	
	행정적/제도적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주. N = 23. 일반적: 22-23사례, 전형적: 12-21사례, 변동적: 4-11사례, 드문: 2-3사례

한 관계 형성' 등이 이 범주에 속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뿐만 아니라 이제 선배라든가 지도 교수님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됐고 연구를 할 때 그 방향이 아니라고 이제 바로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선배랑 지도 교수님인데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참가자 10, '교수, 선배와의 활발한 소통')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어쨌든 석사과정을 약간 버티고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같이 지냈던 박사과정 또 석사과정에 뭔가 동료들이 같이 있어서 ... 그래서 같이 뭔가 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얼마만큼 원만한 관계를 약간 유지해서 같이 해가면서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참가자 14, '교수, 선배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

### 선배의 도움

해당 범주에서 정의하는 선배는 '동기'와 달리 동시기가 아닌 앞선 시기에 학업적 과정을 시작하거나 거친 사람들을 말한다. 유사한 시기에 함께 학업적응을 경험하는 동기들과는 다르게 선배들은 이미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대학원 학업과 생활 관련 도움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하위범주로는 '선배의 조언과 위로', '선배와의 공동 연구 활동에 참여', '선배의 학술적 지원/도움' 등이 있었다.

“다행히 선배들도 다 겪으니까 이렇게 썬 말을 다 같이 세미나 때 들으면 교수님 나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따로 연락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참가자 29,

'선배의 조언과 위로')

“그래서 이 박사과정생분들 주도로 논문 출판을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논문을 한 세네 개씩 걸쳐가지고 이제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제일 주요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참가자 7, '선배와의 공동 연구 활동에 참여')

“석사과정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다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연구실에 대한 이해가 덜한 반면에 이제 박사과정생분들은 오래 계셨던 분들이 비교적 많아서 그분들이 세미나를 주도적으로 좀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면 된다 이런 식의 안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참가자 7, '선배의 학술적 지원/도움')

### 교수의 지도 방식 및 태도

해당 범주에는 '학생에 대한 교수의 배려나 직접적인 도움', '교수의 체계적이고 지지적인 지도 방식', '본받을 만한 교수의 태도와 행동' 등이 포함되었다. 참가자들은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수강하는 강의의 교강사, 논문심사 교수와 같이 보다 넓은 범위의 교수를 포함한 사례들을 언급하였다.

“제가 정말 부득이하게 참여 못하는 경우에는 수업하는 교수님께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제 진로 때문에 참여를 못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좀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 (참가자 10, '학생에 대한 교수의 배려나 직접적인 도움')

“... 4기 때는 제가 국제학술대회도 교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가지고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나름 뭔가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국내 포스터 국내 논문 나중에는 해외 학술대회 발표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되는 게 당신 나름대로의 뭔가 성장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참가자 14, ‘교수의 체계적이고 지지적인 지도 방식’)

“그래서 정말 추진력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기간 내에 달성하는 게 정말 어렵고 사소하게는 오늘 할 수 있는 거를 내일로 미루지 않는 거에서부터 다양한 커넥션을 만들려는 노력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지도 교수님께서 직접 많이 보여주셨어요.” (참가자 11, ‘본받을 만한 교수의 태도와 행동’)

#### 적절한 연구주제 탐색 및 선정 활동

학위논문 작성을 위해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주제를 탐색하고, 적절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 대한 범주이다. ‘적절한 연구주제 선정의 중요성’,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의 연구주제 탐색’ 등의 하위범주가 해당 범주에 속하였다.

“... 거기서부터 자신만의 고유한 그 가치가 생기는 거고 실제 그 분야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다 보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잘 안 된다는 무서운 말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되게 연구를 할

때 저도 그런 방향 설정에 있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요” (참가자 21, ‘적절한 연구주제 선정의 중요성’)

“제가 다녔던 랩실은 계약했던 연구들이 거의 사기업하고 계약했던 게 많았어서 현업 위주의 문제 해결이 대부분 논문 주제로 결정되었었거든요. 그래서 현업의 문제점이랑 현업이 원하는 연구 방향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참가자 22,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의 연구주제 탐색’)

#### 연구실 학술 활동 및 지식 공유

주기적인 세미나 또는 공동연구와 같은 연구실 학술 활동과 연구실이라는 하나의 집단에 축적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하위범주로는 ‘연구실 동료들과의 정기적 학술 활동’, ‘연구실에 축적된 지식과 정보 활용’ 등이 있었다.

“스터디를 하게 되면은 공부하는 것 자체도 훨씬 꾸준히 하게 되고 집중도 잘 되고 논의를 같이 할 분도 많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관심사를 새로 발굴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제를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더 심화할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원의 다른 분들과 교류를 하게 되면 제 글을 발표하기 전에 한번 읽어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퇴고를 검토받기도 하는데 그게 되게 도움이 됐고요.” (참가자 18, ‘연구실 동료들과의 정기적 학술 활동’)

“... 학생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그리

고 연속성 있게 거기에서 계속 근무를 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 랩의 지식의 축적이나 어떤 아카이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전에 누군가가 했던 것들은 하지 않고 그런 경험적인 부분을 많이 소거를 시켜 나가면서 해서 요구하는 시간에 맞춰서 학위를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가자 13, ‘연구실에 축적된 지식과 정보 활용’)

#### 연구실 외부 학술 활동

해당 범주에서 말하는 연구실 외부 학술 활동은 교내 혹은 정규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학술 활동을 의미한다. ‘학회 참여/발표’, ‘타대학 학생들과의 학술 교류’, ‘연구 용역 참여’, ‘정규과정 외 강의 수강’ 등의 하위범주가 이에 포함되었다.

“... 매년 학술대회 교육학회가 있을 때마다 포스터든 논문이든 팀을 짜서 무조건 나가게 하셨어가지고 그러한 학술대회 경험도 사실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참가자 14, ‘학회 참여/발표’)

“... 꼭 이제 본인 연구실이 아니어도 외부에 있는 대학원생들이랑 좀 네트워킹을 하면서 같이 조금 지식을 좀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본인 지식을 늘려갈 수 있었던 게 좀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 (참가자 9, ‘타대학 학생들과의 학술 교류’)

“그리고 회사랑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프로젝트의 어떤 연속성과 또 명확한 목표의식 그리고 그것이 요구하는 스케줄이 꽤 명확했기 때문에 어

떤 그 전반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일스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가자 13, ‘연구 용역 참여’)

“... 제가 속했던 학과의 경우에는 외부 초청 강좌라든지 아니면 그 내부에서도 이제 박사 이상 박사 졸업하신 분들이 이제 박사님들이 특강을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가르쳐 주시고 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참가자 16, ‘정규과정 외 강의 수강’)

#### 학습 동기 관리

학습 동기란 스스로 학습활동을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개인이 의도한 학습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으로 정의된다(Bropy, 1998). 이러한 학습 동기 관리와 관련된 범주에는 ‘공부에 대한 흥미’, ‘목표를 이루려는 의지’ 등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계속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학습 자체에 대한 유의미성을 찾고, 의지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 실제 생활에서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그냥 단순한 그냥 글만 보는 공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조금 더 동기부여가 돼서 더 많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참가자 17, ‘공부에 대한 흥미’)

“... 중간에 또 실패를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실험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 어떤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참가자 24, ‘목표를 이루려는 의지’)

### 목표설정 및 실행

대학원 학업적응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는 다양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목적과 같은 상위 수준의 목표 뿐만 아니라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과업에 대한 목표와 같은 하위 수준의 목표 모두 언급되었다. ‘진학 목적에 대한 고민’, ‘구체적인 목표설정 및 자기관리’ 등의 하위범주가 이 범주에 속하였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고자 하는 바가 되게 명확해서 입학 전부터 이제 어떤 교수님께 어떤 연구 지도를 받고 싶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참가자 16, ‘진학 목적에 대한 고민’)

“... 많은 실험을 통해서 어쨌든 빨리 논문을 쓸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데 목표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참가자 24, ‘구체적인 목표설정 및 자기관리’)

“...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게 되면 너무 나태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자기 관리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참가자 11, ‘구체적인 목표설정 및 자기관리’)

### 필요한 역량 파악 및 개발

대학원 석사과정 및 졸업 후 자신에게 어떠

한 역량이 요구되는지 파악하고, 이를 개발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학술, 연구에 관련된 역량이나 회사, 실무에서 필요한 역량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하위범주로는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한 이해’, ‘대학원 생활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이해’ 등이 있었다.

“... 기업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무에서 어떤 스킬셋을 원하는지 약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개인의 디벨롭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참가자 9,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한 이해’)

“... 가장 대학원 생활에서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추진력인데요 ...” (참가자 11, ‘대학원 생활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이해’)

### 진학 준비 활동

대학원 입학 전, 교수나 선배를 통해 대학원이나 해당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미리 탐색하고, 연구 방향 논의 또는 스터디와 같은 연구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범주들과 달리 해당 범주는 석사과정 중의 활동은 아니지만 학업적응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범주로 분류하게 되었다. ‘사전 연락을 통한 대학원 정보 탐색’, ‘입학 전 연구 활동 참여’ 등이 하위범주로 속하였다.

“... 석사 논문 주제를 정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연구 분야, 저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자면 조선시대 그중에서도 조선 후기 사회 경제사를 지도해 주실 분이 계

신지 (탐색하고) ... 그리고 그분과 입학 전에 사실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본인의 업을 지도해 주실 지도 교수님이기 때문에 사전에 좀 교수님과 연락을 해서 미리 석사 입학 전이라도 ...” (참가자 5, ‘사전 연락을 통한 대학원 정보 탐색’)

“... 저는 학부 한 3학년 때부터 대학원 분들 스터디하는 데 끼어서 같이 공부하거나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때 특히 도움이 되었던 거나, 그때부터 이어져서 대학원분들이랑 이렇게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게 되게 도움이 된다고 느꼈어요.” (참가자 18, ‘입학 전 연구 활동 참여’)

#### 외부 환경 및 시스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학원 학업적응 과정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모든 상황요인을 포함한다. 동일한 외부 환경요인이더라도 개인에 따라 촉진요인이 되기도 하고, 저해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중립적인 범주명으로는 명명하였다. 해당 범주에 포함된 하위범주에는 ‘다양한 강좌’, ‘졸업요건 다양화’, ‘행정적/제도적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괜찮았던 거는 수업 선택의 폭이 되게 넓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참가자 4, ‘다양한 강좌’)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6학점만 들으면 졸업이 되기 때문에 ... 이제 박사 생각 안 하고 취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후배들도 있어서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졸업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참가자 29, ‘졸업요건 다양화’)

“... 좀 기계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약간 저희 과도 BK 사업단을 진행했었는데 아무래도 대학원생은 약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학술지나 이런 것들을 게재할 때 그런 게재료라든가 아니면 학술대회에 나갔을 때 그런 참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BS에서 아무래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점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 ...” (참가자 14, ‘행정적/제도적 지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직장도 병행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좀 시간 내기에는 오히려 비대면이었어서 좋았다라는 점이고 ... 만약에 모두 대면 수업으로 했다고 하면 몇 배는 더 어떤 체력적이나 아니면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요구를 받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비대면 수업이었던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 (참가자 4,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따로 하위범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참가자들의 응답 중 유의미한 핵심개념으로 추출된 촉진요인 내용으로는 학습기기(예: 태블릿 PC 등), 체계적 정리, 쉬운 종합시험 등이 있었다.

#### 영역 2: 저해요인

석사과정 대학원생의 학업적응에 대한 저해요인 영역에서는 11개의 상위범주와 28개의



표 4. 영역 2: 저해요인

범주	하위범주	응답빈도
교수의 지도 방식 및 태도	교수의 소극적 태도 및 지도 미비	전형적(15)
	교수 중심의 지도 방식	
	교수와의 소통 문제	
경험 및 역량 부족	대학원 과업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전형적(14)
	연구 및 학습 역량 부족	
	경험 부족	
연구 및 논문 작성의 어려움	연구 주제 선정의 어려움	전형적(13)
	연구 성과의 불확실성	
	구체적인 지침 부재	
학습시간 부족	업무 병행으로 인한 시간 부족	변동적(10)
	학문 분야의 특성으로 인한 시간 부족	
경제적 어려움	경제활동 기회 부족	변동적(7)
	높은 지출 대비 낮은 수익	
연구실 체계 및 문화	연구실 활동 및 단합력 부족	변동적(7)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연구실 문화	
	집단지식 축적과 활용의 비체계성	
외부환경 및 시스템	동료 간 간극	변동적(10)
	강좌 다양성 및 효율성 부족	
	학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부족	
동료와의 교류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문제	변동적(6)
	동료와의 소통 및 연대감 부족	
자기관리의 어려움	동료와의 학술적 교류 부족	변동적(9)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목표 및 동기 관리의 어려움	
대학원 생활에 관한 이해 부족	연구와 대학원 생활에 대한 사전 이해 부족	변동적(6)
	학사 제도에 관한 정보 부족	
졸업 및 진로의 불확실성	졸업의 불확실성	드문(2)
	졸업 후 진로의 불확실성	

주. N = 23. 일반적: 22-23사례, 전형적: 12-21사례, 변동적: 4-11사례, 드문: 2-3사례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요약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각 범주별로 아래 설명하였다.

### 교수의 지도 방식 및 태도

대학원 석사과정생의 학업과정에 대한 교수의 지도 방식이나 태도를 말한다. 지도교수의 소극적인 태도나 지원 부족, 학생의 관심 분야와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교수 중심적 지도 방식은 특히 논문 작성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교수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소통 자체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대학원 석사과정생의 학업적응에 교수의 지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다수의 참가자들이 교수의 지도 방식이나 태도를 언급하였다. ‘교수의 소극적 태도 및 지도 미비’, ‘교수 중심의 지도 방식’, ‘교수와의 소통 문제’ 등이 해당 범주에 속하였다.

“... 그 분야에 있어서는 이 교수님이 맞다라고 다른 교수님 통해서도 추천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실 논문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 (참가자 12, ‘교수의 소극적 태도 및 지도 미비’)

“그러다 보니까 그 쪽 관련된 수업이나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저도 근데 어찌다 보니까 이제 그걸 계속하다 보니까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도 이 분야가 괜찮으니까 너 계속 이거를 해라 하시는데 ...” (참가자 10, ‘교수 중심의 지도 방식’)

“저도 지도교수님하고 1대 1로 만나기도 하고 이제 연구실 미팅을 통해서 이제

여러 다대일로 만나기도 했지만 지금도 사실 교수님은 어려운 부분(이예요) 지도교수님은 여전히 어려운 존재이고 네 어떻게 선뜻 말을 먼저 건네기가 (어렵고) 아니면은 조심스럽게 인사드리는 것도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가자 3, ‘교수와의 소통 문제’)

### 경험 및 역량 부족

우리나라의 경우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주도적이고, 자율적인 학습 태도를 요구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관련된 경험이 충분하지 못해 역량 부족이나 생소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느낀다(권석만, 2010; Credé & Nichorster, 2012). 이와 관련된 범주로 ‘대학원 과업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연구 및 학습 역량 부족’, ‘경험 부족’ 등이 하위범주로 속하였다.

“... 스스로 자신의 교육 과정을 짜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 관리도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고 본인이 알아서 질문을 찾고... 그러니까 연구 주제를 찾고 그거에 대한 답도 본인이 알아서 찾아가야 된다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참가자 8, ‘대학원 과업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개인이 어떤 논문을 보려고 하면 논문을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란 말이에요.” (참가자 9, ‘연구 및 학습 역량 부족’)

“저희는 학과 특성상 각자 다른 분야에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를 접목해 보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저의 경우에는 특히 더 새로운 분야였어

요.” (참가자 7, ‘경험 부족’)

### 연구 및 논문 작성의 어려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과업인 연구 및 논문 작성 자체의 어려움 또한 학업 적응의 저해요인으로 언급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진로에 적절한 연구 주제를 찾는 것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도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결과물이 나온다거나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하였다. 연구 마무리 단계인 논문 작성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해 방향성을 잡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해당 범주의 하위범주에는 ‘연구 주제 선정의 어려움’, ‘연구 성과의 불확실성’, ‘구체적인 지침 부재’ 등이 있었다.

“... 논문 작성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주제를 뭐를 해야 할 것인가가 되게 저는 어려웠거든요.” (참가자 17, ‘연구 주제 선정의 어려움’)

“공부는 약간 효율이 안 좋아도 제가 투자하는 만큼 뭔가 아웃풋이 확실하게 나오는 느낌이었었는데 연구는 사실 제가 노력하는 것 대비해서 뭔가 결과가 확실히 좋은 결과가 확실히 나온다고 좀 못 느꼈거든요.” (참가자 20, ‘연구 성과의 불확실성’)

“논문 쓰는 과정에서도 어떤 좀 세부적인 가이드나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아예 없지는 않았는데 많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꼈던 것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참가자 4, ‘구체적인 지침 부재’)

### 학습시간 부족

연구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중심적인 과업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대학원생들이 연구 이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분제(part-time) 대학원생일 경우 회사 업무와 대학원 학업을 병행하게 되고, 연구실의 행정적 업무나 연구 용역 등 다양한 업무들을 함께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연구에 필요한 학습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실험에 많은 시간 투자가 요구되거나 논문 작성 자체에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필요한 학문의 경우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하였다. 하위범주로는 ‘업무 병행으로 인한 시간 부족’, ‘학문 분야의 특성으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이 있었다.

“그래서 9시부터 5시 반까지는 일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의 과제라든가 교수님과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 돼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고 그런 것들은 어찌 됐든 밤을 새가면 서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라서 이것도 좀 개인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 14, ‘업무 병행으로 인한 시간 부족’)

“제 경우에는 저는 화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화학 전공자들은 대부분 실험을 하고 이에 대한 논문을 써야지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했습니다.” (참가자 24, ‘학문 분야의 특성

으로 인한 시간 부족)

### 경제적 어려움

학생연구원 채용이나 장학금 조건의 경우 대부분 4대보험을 받는 직장과 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연구활동과 별개의 정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 이외에도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 지출비용은 많지만, 수익이 없거나 낮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 ‘경제활동 기회 부족’, ‘높은 지출 대비 낮은 수익’ 등이 해당 범주에 속하였다.

“이 장학금이라는거의 특성상 조건이 이제 붙는 것 중에 하나가 전일제 대학원 생이어야 된다는 이런 조건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을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사대보험이 되면 안 되고 이런 조건들에 많이 부딪히시는 것 같아요.” (참가자 17, ‘경제활동 기회 부족’)

“성대가 사실 제가 타 학교 출신이어서 삼성재단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장학금 제도도 많이 없었고 그런 부분에서 다른 친구들도 다 이제 취업을 안 하고 풀타임으로 저 같이 온 친구들은 다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 같이 겪으면서 프로젝트가 없나 막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었거든요.” (참가자 29, ‘높은 지출 대비 낮은 수익’)

### 연구실 체계 및 문화

연구실 자체의 부재와 연구실 비체계적인

구조나 위계적 분위기 또한 학업적응 저해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연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 학업적응에 막막함을 느끼거나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였다. 하위범주로는 ‘연구실 활동 및 단합력 부족’,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연구실 문화’, ‘집단지식 축적과 활용의 비체계성’, ‘동료 간 간극’ 등이 있었다.

“... 저희는 랩실이 따로 없고 연구실이 따로 없어서 맨 처음에 들어오면 굉장히 막막한 상황인데 ...” (참가자 8, ‘연구실 활동 및 단합력 부족’)

“대학원이 아주 좁은 조직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 이 랩실 10명 남짓한 그런 사회에서 조금 그 문화가 정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오히려 다른 회사나 좀 더 공적인 그런 사회보다 더 보수적이고 선후배 간의 위계 질서가 더 뚜렷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많이 답답함을 느꼈어요.” (참가자 13, ‘보수적이고 위계적인 연구실 문화’)

“... 대학원이라는 곳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식이나 기술의 축적이 회사나 다른 조직보다는 체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참가자 13, ‘집단지식 축적과 활용의 비체계성’)

“그러니까 학위 논문 자체도 쓰지 않고 그냥 일정 30학점인가만 이제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렇다 보니까 그 대학원을 같이 다니는데 대학원 연구자로서의 뭔가 무게감이 다르다고 해

야 되나 그런 걸 좀 하는 게 좀 공유하기가 좀 사실 어려웠어요.” (참가자 16, ‘동료간 간극’)

### 외부환경 및 시스템

촉진요인의 ‘외부환경 및 시스템’ 범주와 동일하게 대학원 학업적응 과정에서 개인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모든 외적 환경요인을 말한다. 앞서 언급했듯, 동일한 외부환경요인이더라도 개인에 따라 촉진요인이 되기도 하고, 저해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강좌 다양성 및 효율성 부족’, ‘학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문제’ 등이 하위범주로 속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른 과목이 되게 선택할 게 많아서 좋았는데 다음에 이제 3학기 때가 되니까 그 과목들이 거의 그대로 올라오는 …” (참가자 4, ‘강좌 다양성 및 효율성 부족’)

“이제 10시 근무 시간이 이제 오전 시간부터 이제 한 저녁 한 7시 정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 행정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행정실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이제 서류를 제출 하셔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못하시고 …” (참가자 3, ‘학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부족’)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논문 작성법 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 학교에서 제시해 주는 비전이 있는데 그런 것과 실제로 지원 서포트가 되는 부분은 되게 차이가 컸다라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참가자 4, ‘학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부족’)

“어려웠던 점도 조금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학회도 없고 그러니까 첫 1년은 정말 아예 없었고요” (참가자 7, ‘코로나-19로 인한 문제’)

### 동료와의 교류 부족

대학원 학업적응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없거나 교류가 부족한 것을 말한다. 촉진요인과는 달리 저해요인에서 동료는 선배와 동기가 구분되지 않고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범주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생성하였다. 코로나-19, 유사한 분야를 연구하는 동료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동료와 교류 부족 사례가 언급되었다. ‘동료와의 소통 및 연대감 부족’, ‘동료와의 학술적 교류 부족’ 등의 하위범주가 있었다.

“... 제가 동기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진짜 한 손가락에 꼽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공유하기도 어렵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참가자 16, ‘동료와의 소통 및 연대감 부족’)

“그러니까 코어 장학생으로 많이 들어온 학생들도 거의 독문학을 하지 독어학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서 제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저의 윗 기수로 있는 선배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이고 선배 아니면 교수님밖에 없어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도 나눌 동기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조금 더 학문적으로 심화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도 대상이 한정적이다보니까 그게 되

게 어렵더라고요.” (참가자 17, ‘동료와의 학술적 교류 부족’)

### 자기관리의 어려움

스스로의 건강이나 체력 뿐만 아니라 학업 관련 목표와 동기를 포함하여 대학원 생활에서 전반적인 자기 관리의 어려움을 말한다. 참가자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체중 변화나 운동 부족으로 체력 저하를 경험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육체적 부분 외에도 불안감, 무기력감과 같은 정신적 부분의 관리 어려움도 보고하였다. 또한 스스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목표와 동기를 관리하는 것의 어려움도 언급되었다. 하위 범주로는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목표 및 동기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그리고 좀 건강 관리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폭식도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기도 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계속 앉아 있다보니까 눈 아픈 건 기본이고 이제 허리 목 다 아팠던 것 같고 ...” (참가자 3,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연구 주제가 어렵고 학위 프로젝트를 목표 달성을 제때 하기 어려운 것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로 제가 어떤 정해진 시간 안에 어느 정도의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어느 정도를 습득할 수 있는가부터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 ...” (참가자 13, ‘목표 및 동기 관리의 어려움’)

“네 저는 대학원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부 의욕이 떨어지는 상황 슬럼프 상황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 (참가자 18, ‘목표 및 동기 관리의 어려움’)

### 대학원 생활에 관한 이해 부족

대학원에서 진행하게 되는 연구나 학업 및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학사 제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개인이 정보를 충분히 탐색하지 못한 경우와 정보 창구 부재가 그 원인으로 언급되었다. 하위범주로는 ‘연구와 대학원 생활에 대한 사전 이해 부족’, ‘학사 제도에 관한 정보 부족’ 등이 있었다.

“... 동시에 저는 또 부분제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몰랐던 것도 어려웠던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참가자 25, ‘연구와 대학원 생활에 대한 사전 이해 부족’)

“그리고 특히 이게 행정상으로 영어 시험 제출하는 날짜가 막 따로 있는데 그거 놓쳐가지고 막 졸업이 밀리고 이런 경우가 있긴 있더라고요.” (참가자 7, ‘학사 제도에 관한 정보 부족’)

### 졸업 및 진로의 불확실성

일정 기간 안에 논문 작성을 마무리하고 졸업을 할 수 있을지와 석사 학위를 받은 후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한다. 학교 행정/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논문 작성이 늦어지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실험과 같은 요소들이 졸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초조함을 느꼈다고 말하였다.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또

래 친구들보다 사회에 늦게 나가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진로에 대한 고민 또한 언급되었다. 해당 범주에는 ‘졸업의 불확실성’, ‘졸업 후 진로의 불확실성’ 등이 하위범주로 속하였다.

“논문을 쓰긴 써야 될 텐데 이게 지도 교수 배정에 대한 공지도 없고 그게 어떻게 진짜 이렇게 해서 논문 졸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불안이 엄청 컸고 ...” (참가자 12, ‘졸업의 불확실성’)

“그래서 취업이 될까 이제 석사를 나간다고 해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 (참가자 29, ‘졸업 후 진로의 불확실성’)

하위범주로 따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참가자들의 응답 중 유의미한 핵심개념으로 추출된 저해요인 내용으로는 대학원 수업의 효율성 부족, 현장조사로 출장과 운전이 잦음, 지도교수와 심사교수의 다른 심사기준, 논문/발표 투고 방식 및 기간의 상이 등이 있었다.

## 논 의

본 연구는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이 학업적응 과정 경험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어떠한 요소들이 학업적응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위논문 작성을 완료한 석사수료생 및 졸업생 23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을 진행하고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촉진요인 영역에서는 총 12개의 상위범주와 30개의 하위범주, 저해요인에서는 총 11개의 상위범주와 28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먼저 학업적응의 각 영역별 상위범주의 주요 내용과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학원 학업적응의 촉진요인은 석사과정생들이 전반적인 대학원 생활과 학업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요소로 동료들 간의 협력과 지원, 교수 및 선배와의 상호작용, 선배의 도움과 교수의 지도방식 및 태도와 같은 대학원 내 대인 관계와 관련된 상위범주들이 보고되었다. 또한 연구주제를 탐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연구실 안팎의 학술활동에 참여하는 등 학업과 직접 관련된 상위범주들도 언급되었으며, 이와 함께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스스로 동기를 관리하고, 목표를 설정·실행하며, 필요한 역량을 파악해서 개발하려는 자기관리 및 개발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입학 전에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연구 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나, 외부의 환경 및 시스템(예: 다양한 강좌, 학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학점대체졸업제도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도 학업적응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12가지 상위범주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석사 학위 과정 동안 대학원 동료들과 상호작용 하면서 연구를 지속하고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나 자극을 받는 것이 촉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배들과 세미나나 프로젝트를 함께 하면서 실질적인 연구 세부절차를 익혀 자신의 학위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 경험을 쌓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며, 학회발표 등을 단기 목표로 정

하고 자기 관리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학원의 연구와 학습이 혼자서 자신의 학습을 관리하고, 개별적으로 지도교수에게 도움을 받는 개인 학습의 영역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상호작용과 풍부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석사과정 대학원 생활이나 학업을 어렵게 만들었던 저해요인에는 ‘교수의 지도방식 및 태도’, ‘부족한 연구 경험과 역량’, ‘연구 및 논문작성의 어려움’과 같은 연구관련 상위범주가 주요하게 보고되었다. 더불어 ‘학습시간의 부족’과 ‘경제적인 어려움’, ‘권위적이고 비체제적인 연구실 문화’, ‘외부 환경 및 시스템’(예: 강좌의 다양성 부족, 학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학업적응을 저해하는 상황관련 상위범주들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동료와의 교류 부족, 자기관리의 어려움, 대학원 생활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졸업이나 진로가 불확실한 것도 대학원 학업적응을 저해하는 상위범주들로 언급되었다. 이러한 11개의 상위범주 중에서는 ‘교수의 지도방식과 태도’가 단일로는 가장 비중이 큰 범주였고, ‘연구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하여 ‘연구 및 논문작성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도 주요한 저해요인으로 관찰되었다. 그 외에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여 연구와 학습에 몰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관리하는 것의 어려움과 학습에 몰두하기 어려운 외부의 상황적 요소들이 저해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직 연구역량과 경험이 부족해 연구와 논문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대학원 생활의 큰 난관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의 지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교수 중심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리고 개인 내적/외적 요소로 인해 학업에 집

중하기 어려울 때 가중되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촉진요인 영역과 저해요인 영역의 상위범주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지도교수 및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이나 소통과 관련된 사회적 차원, 학위논문 진행이나 학술 경험 및 역량과 관련된 학문적 차원, 목표설정 및 동기와 스트레스에 대한 자기관리를 행하는 자기관리 차원, 그리고 학교 제도 및 교육과 관련된 상황적 차원으로 분류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들은 Baker와 Siryk(1984)가 언급했던 대학생활적응의 네 차원의 분류와 일관되어 본 연구의 범주분류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 생활의 적응적 단면과 함께 어려움과 저해요인을 다루었고 문화적·시기적 차이도 있기 때문에 Baker와 Siryk(1984)의 적도의 차원들과 차원의 내용은 다소 다른 점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활적응 척도에서는 학업목표 설정 및 몰입에 관한 내용들을 대학애착 측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학교 시스템이나 외부 환경과 관련된 측면은 포함되지 않는다.

두 영역 모두 네 개 차원이 동일하게 등장한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영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응답빈도의 차이이다. 두 영역의 상위범주들을 Hill(2016)의 기준에 따라 구분했을 때, 모든 참가자에게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례는 없었다. 이에, 각 요인의 응답 빈도를 고려해 ‘전형적’, ‘변동적’, ‘드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학업적응의 촉진요인 중에서는 ‘전형적’인 기준에 도달한 범주가 없었고, 모두 ‘변동적’이었던 반면, 대학원생들의 학업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에는 ‘전형적’, ‘변



동적’, ‘드문’이 모두 존재했다. 이 중에서도 ‘교수의 지도방식 및 태도’, 자신의 ‘경험 및 역량 부족’, ‘연구 및 논문 작성의 어려움’ 3가지가 다수의 석사 대학원생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했던 ‘전형적’ 범주로 도출되었다. 또한, ‘교수의 지도방식 및 태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도교수와 의 어려움이 관계적 어려움이라기 보다는 논문 작성에 지도교수의 논문지도가 필수적임에도 지도교수를 만날 수 없거나, 지도를 충분히 받지 못하거나, 지도교수 중심으로 논문의 주제나 연구 방향이 결정되는 소통의 문제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대학원에서 교수와 대학원생의 사회적 관계에서 핵심이 논문지도이며(정채윤 등, 2022), 교수의 논문지도는 대학원생의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자원(Golde, 2000; Weidman & Stein, 2003)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업적응의 저해요인 영역에서 ‘전형적’으로 분류된 3가지 상위범주는 모두 연구수행과 관련된 학문적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내용적인 차이이다. 비록 ‘전형적’으로 분류된 범주가 없었지만 촉진요인의 범주들을 내용적으로 분류해보면 ‘교수의 지도방식과 태도’, ‘동료의 협력과 지원’, ‘선배의 도움’, ‘교수/선배와의 상호작용’ 등 대학원 내 동료들과 관련된 범주들이 네 가지로 가장 많았고, 네 가지 범주의 총합 응답 빈도도 29로 높았다. 이는 전형적으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대학원에서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촉진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추론과 일관되게, 참가자들은 힘든 대학원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보고했다. 연구에 대한 막막함과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챙기거나, 지도교수의 꾸지람에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동

기와 선배들로 인해 지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결과와 일관되게 전재은 등(2021)의 연구에서는 같은 전공 소속이거나 지도교수가 같은 동료 대학원생과 함께 연구실 등에서 대학원 생활을 보내는 것이 학업중단에 대한 고민을 감소하는 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촉진요인의 주요 범주들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회적 차원 외에도 일부 학문적 차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지도교수의 지도방식은 지도교수의 배려나 긍정적인 롤모델로서의 모습,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태도 등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주로 발견되었지만 일부 체계적인 논문지도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또한 ‘선배의 도움’도 위로나 조언을 통해 정서적으로 지지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선배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연구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듣거나, 그들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등 선배의 학술적 지원이나 도움, 그리고 선배를 통한 연구 활동 참여도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저해요인의 범주들을 내용적으로 분류해보면 ‘전형적’으로 언급되었던 3가지 학문적 차원 범주와 함께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외부 환경들 특히, ‘학습시간의 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범주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범주들을 종합했을 때, 저해요인의 범주들은 학문적 차원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의 응답빈도 및 응답내용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학원 학업적응의 전형적인 저해요인이 연구수행과 관련된 학업적 차원인 것에 반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형적인 촉진

요인은 없으나 지도교수, 선배, 동기 등 동료들과의 사회적 차원과 이를 통한 학술 경험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영역별 구분에 이어, 많이 언급되었던 주요 상위범주들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살펴볼 상위범주는 ‘지도교수의 지도방식 및 태도’로,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학원생들의 학업적응에 주요한 촉진요인임과 동시에 저해요인으로 다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도교수와의 유대 및 지도교수의 적절한 지도는 대학원생의 학위 취득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지도교수의 방임과 괴롭힘은 대학원생의 학업 중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순용, 김아람, 2017; Bair & Haworth, 2004; Golde, 2005; Lim et al., 2019; Martin et al., 2015; Ruud et al., 201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도교수의 지도방식 및 태도가 석사 대학원생들의 학업적응 측면에서 전형적인 저해요인이었지만 전형적인 촉진요인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첫째는 한국에서 지도교수가 갖는 권위와 관계 모델로 인한 영향이다. 대학원의 도제식 지도 모델은 지도교수와 학생 간 수직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특히 한국의 대학원 문화는 권위적이고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위계적이고 경직된 관계를 갖는다(김중영, 2015; 박순용, 김아람, 2017; 임희진 등, 2016; 전재은 등, 2018; 한상연, 김안나, 2009). 이러한 환경에서 지도교수와 석사 대학원생의 유대와 친근함과 같은 친화적 단면이 쉽게 관찰되기 어려울 것이며, 그 결과 긍정적인 촉진요인으로 많이 언급되지 않았을 수 있다. 실제 참가자들도 선배나 교수와의 상호

작용을 함께 언급한 경우는 있었지만, 지도교수와의 유대감과 친밀감에 대해 단독으로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석사과정생들의 경우, 멘토로서 개인적 유대와 친밀감을 쌓고 연구자로서의 고민을 나누는 것을 지도교수와 함께 하기도 하지만 위계적인 차이가 덜 해 부담없이 자주 만날 수 있는 박사과정 선배들과 주로 나누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도교수라는 요인이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비대칭적(asymmetric)일 가능성이 있다. 여러 연구에서 지도교수가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양쪽 영향을 모두 밝히고 있지만, 다수의 선행 연구들에서 지도교수라는 요인이 미치는 영향이 단순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지도교수의 지도방식이 학생의 학업 효능감, 학업 중단, 진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Austin & McDaniels, 2006; Paglis et al., 2006), 지도 효과와 지도방식의 적절성은 학생 개인특성, 연구 진행 단계, 전공이나 학문분야 등 다양한 요인들과 상호작용한다(Boehe, 2016; Gardner, 2008; Mainhard et al., 2009). 예를 들어, 지도교수의 지도유형과 학업중단 간 관계를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 지도교수의 ‘역압 및 착취’는 학문분야에 관계없이 대학원생들의 학업중단 의사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도교수의 ‘정서적 지지’ 효과는 자연과학계열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약화시킨 반면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학업중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학문분야에 따라 효과가 달리 나타났다(전재은 등, 2021). 이는 지도교수의 미비한 지도나 방치, 역압과 착취, 소통의 부재 등 부정적 영향은 단독으로도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적절한 지도의 효과는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했을 때에야 긍정적으로 발

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학원생들의 학업적응을 위한 지도교수의 적절한 지도범위와 방식은 전공이나 연구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지도교수 및 석사 대학원생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지도교수와 학생 간 상호작용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도면담 횟수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연구 지도에서의 윤리적 태도 등에 대한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학교의 실질적 방침이나 가이드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학문 분야와 지도 유형을 막론하고 학생과의 관계에서 믿음과 신뢰 및 상호 존중을 통한 밀접한 상호작용이 대학원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연구자 정체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승정, 2019)는 점을 고려하면, 논문지도 이외에 연구자로서의 고민이나 멘토로서 지도교수가 발전해 온 과정이나 현재 지도교수로서의 어려움을 상호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들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학원생의 지도교수 선택과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 그리고 입학 후 지도교수와 학생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개별 학생과 지도교수에게만 대처나 관리를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학기관 및 학과가 모두 함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전재은 등, 2021).

다음으로 주요하게 거론된 상위범주는 ‘동료’ 및 ‘선배’와 관련된 범주이다. 이 중에서도 입학 시기나 학위논문 진행 시기가 비슷한 동료들의 경우 서로 비슷한 처지와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연구실이나 대학원 외부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심정적인 유대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이며,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관계이면서 동시에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협력하는 실질적인 자원이 되어주는 관계, 그리고 때로는 상호 촉진과 경쟁을 하는 관계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료와의 소통 및 연대감 부족’, ‘동료와의 학술적 교류 부족’, 또는 ‘동료의 부재’ 등 ‘동료와의 교류 부족’은 학업적응의 저해요인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동료와의 관계가 학업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스트레스와 학업 동기를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듯 동료들이 사회적 차원의 심리적, 정서적 지지 역할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면, 석사나 박사 선배들의 경우에는 심리 정서적 지지와 함께 실질적인 학업지원과 연구 도움 역할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선배들은 동일한 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기에 많은 설명 없이도 공감과 위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지도교수의 꾸지람 속에 담긴 메시지를 해석해서 실질적인 조언도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선배들은 연구 및 논문작성이 처음이라 어려움을 겪는 석사과정생들에게 연구 경험이나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지도교수의 매칭이나 박사 선배들의 권유로 선배들이 진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연구 보조로 참여하여 연구 장비관리나 사용법을 습득하기도 하고 세부적인 연구 설계 및 진행을 관찰하고 학습하기도 했다. 그리고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의 논문작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연구 결과가 어떻게 작성되고 출판되는지 어찌 너머로 익히고 있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선배들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여하며 연구의 기초를 배우는 경우도 있었다. 더불어, 선배들은 보조적인 지도교수의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지도교수에 비해 자주 만날 수 있고, 접근

이 용이하기 때문에 연구 진행에 대해서 상의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존재로 언급되었다. 이렇듯 선배들이 지도교수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석사 대학원생들의 학업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그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주로 지도교수와 더불어 도제식 시스템을 형성하는 구성원으로 등장하고, 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김승정, 2019; 전재은 등, 2021).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간 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축적된 해외 선행 연구(예: Aguinis et al., 1996; Heinrich, 1995; Noy & Ray, 2012; Paglis et al, 2006)에 비해, 국내에서는 대학원생과 지도교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도교수와 함께 선배들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이러한 발견은 도제식 교육 모델의 특성으로 보인다. 대학원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제식 교육 모델은 지도교수 및 동료들 간에 일어나는 상호 작용을 통해 모방과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의미한다(Austin, 2009). 따라서 명확한 지침이나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도교수와 동료와의 인지적 지도, 정서적 지원 등의 상호작용의 측면이 독립적인 연구자로서 성장하는 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승정, 2017; Weidman et al, 2001; Zhao et al, 2007). 그리고 지도교수의 지도가 부족할 경우, 동기나 선배 대학원생들로부터 대학원 적응과 배움에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임희진 등, 2016), 선배들과의 교류와 지원은 학업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입학 시기가 비슷한 동기들의 지지 존재가 촉진요인, 부재가 저해요인으로

등장했던 것과 달리, 선배 관련 범주는 촉진요인에서만 도출되었으며, 저해요인에서 '위계적인 연구실 문화'가 언급되긴 했지만 선배의 괴롭힘이나 착취, 강압 등이 직접적으로는 언급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공간적으로나 실제적인 연구실(Lab)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자율성이 상당히 보장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도제식 모델의 장점인 학습 공동체의 지원을 통한 연구 활동과 학습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석사과정생 개인의 성향이나 사회적 관계를 위한 노력에만 좌우되지 않도록 연구실에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선배들이 진행하는 세미나와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일상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다면, 지도교수의 지도에 더해 다양한 지원 자원이 존재하는 학습 공동체로 작동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학원의 도제식 모델의 장점을 잘 살리기 위한 전제는 이러한 시스템이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도교수의 지도가 핵심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며, 선배나 동기들의 도움이 연구지도와 수행의 주(主)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후배들을 가르치는 경험이 선배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역할이 연구와 학습을 방해하는 의무적인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살피고, 위계적인 연구실 문화가 강한 경우에는 저해요소로 작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다룰 상위범주는 학문적 차원과 개인 차원의 범주들로, 연구자들은 이 범주들이 서로 연결된 것으로 해석했다. 연구 경험이나 역량이 없거나 아직 부족한 석사 대학원생들이 연구 및 논문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며, 본 연구뿐만 아

나라 여러 선행 연구에서도 이러한 고충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들이 논문에 대해 갖는 감정에 대해 연구한 결과, 초반에는 막막함과 두려움, 그 다음으로는 논문 자체가 주는 어려움과 논문 쓰기의 고통, 마지막으로 성취감 보다는 장애물을 넘겼다는 안도감을 느꼈다(장승현, 하제현, 2018). 또한 논문작성 과정에서 ‘연구주제 선정’을 가장 큰 난제로 느끼며, 막막함과 자신감 하락 등 심리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한다(주성희, 2023).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만 ‘연구와 논문’이라는 대상은 그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고 진행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눈에 전체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이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지원하기 위해서 학부과정에 연구방법론 과목들을 개설하고, 대학원에 입학하면 연구 및 논문작성법과 관련된 필수 과목들을 수강하도록 한다. 다만, 참가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수업들이 내용이 실제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고, 정작 필요한 시기가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없어 수강 시거나 수업 내용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선배 등 동료의 풍부한 경우는 이러한 인적 자원을 활용할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원생들의 심리적 고통이나 실질적 연구진행을 위해 대학원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오리엔테이션, 멘토링이나 컨설팅 등 학위논문과 관련된 대학의 교육 및 행정 서비스를 마련하고 대학원 연구 지원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필요한 역량

을 파악하고 개발하는 등의 자기관리 노력이거나, 학회 발표나 연구실 세미나 등에 참여하거나 연구주제를 탐색하고 선정하려는 등 학술활동 경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학문적 역량을 쌓으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했다. 먼저, 자기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포함해,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들을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때 졸업 및 졸업 후 진로가 불확실할 경우 이러한 장기적인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목표 및 동기 관리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동료들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학업 동기와 연구 수행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연구실 내/외의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술활동 경험을 쌓거나, 학회 발표를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시간관리와 동기관리 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들 상위범주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학습시간 부족과 같은 상황적 차원의 범주들이다.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은 학부 때 경험하던 학습과는 질적으로 다르며, 공부할 주제를 선정하고, 학습과 관련된 문헌들을 스스로 탐색하고, 이들을 읽고 정리하여 사전 지식을 쌓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대학원에서는 수업을 듣고, 자신의 연구도 진행해야할뿐 아니라 공동 연구에도 참여하고, 수업조교(TA)나 연구조교(RA)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업무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학습시간의 부족을 저해요인으로 꼽는 경우들도 높은 빈도로 존재했다. 게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

이라면 학습시간이 턱없이 부족할 수 밖에 없고, 2년이라는 기간 내에 학위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면, 대학원 입학 전에 진학 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전 준비활동을 통해 대학원 생활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일관되게 저해요인 중에서 지도교수의 지도방식, 대학원 생활과 학사제도, 대학원 졸업 후 진로 등에 대해 잘 모르고 진학해서 입학 후에는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언급되었다. 이는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미리 진로에 따른 학업목표를 분명히 하고 경제적 지원, 연구실 체계 및 문화, 학교 및 연구실 시스템 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학문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연구 활동은 어떤 것이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지도교수는 어떤 방식으로 지도하며, 지도교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과 자신이 스스로 해나가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이 쌓을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이고, 연구실 생활이나 졸업 후 진로는 어떠한지 등 학업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 학업 의지를 다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장학금이나 조교 활동 및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지원을 파악하고 자신이 대학원 생활을 전일제(full-time)로 할 것인지 부분제(part-time)로 할 것인지, 그에 따라 대학원 생활이나 졸업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대학이나 연구실에서도 고가의 대학원 등록금에 걸맞는 지원과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학원의 학사제도가 대학원과 연구에 대한 생태적 특징들을 사전 설명하거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는 대학의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이 학습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고(김영섭 등, 2010), 학부중심의 현행 행정에서 벗어나 대학원 운영에 대한 질과 경제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이정미, 2013).

이 외에도 상황적 차원에 관한 다양한 범주들이 존재했으나, 대부분 개인에 따라 동일한 상황적 요소들(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강좌 다양성) 촉진요인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저해요인으로 언급하기도 하여 일관되게 해석하기 보다는 개인적 관점의 차이로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향후 연구에 대해 제언하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학위논문 작성을 완료한 석사수료생 및 졸업생들로 구성되었다. 일반적인 대학원생들의 학업적응을 다루기 위한 목적이지만, 학업을 중단한 대학원생들의 저해요인 경험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특별히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했거나,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대학원생과 같이 극단적인 사례를 대상을 본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위연구를 진행하지 않는 특수/전문 대학원생들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은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일반 대학원생들의 학업적응과 질적으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김형관 등, 2005) 이들의 고충과 어려움, 그리고 극복 노력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향후 연구들을 통해 학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 높은 저해요소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의 참가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았던 대학원생들의 ‘개인존엄권’, ‘자기결정권’, ‘학업연구권’, ‘저작권’의 침해 사례

나(허민, 최은혜, 2017), 대학원의 ‘일상적인 권 위주의’, ‘비윤리성’, ‘폐쇄성’(김종영, 2008)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석사 대학원생들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학업적응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생들 본인과 함께 이들을 지도하는 지도교수나, 석/박사과정 선배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학교 행정 근무자들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학업적응을 다룰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도교수들의 경우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거나 지도하고 있는지, 석사과정생들의 학업적응을 돕기 위해 학생, 학교와 함께 노력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서울/경기 4년제 연구 중심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들로 국내 모든 대학의 대학원생들의 학업적응으로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질적 연구의 목적이 일반화에 있지 않지만(김영천, 2012), 대학원생들의 학업적응은 대학의 학사제도 등 시스템이나 문화, 규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발견들을 더 넓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양한 대학의 대학원생들의 학업적응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해 석사 대학원생들이 경험하거나 인식하고 있는 학업적응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탐색하였다. 그러나 질적 연구방법의 특성상, 이러한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이 실제 학업만족, 학업적 수행, 그리고 장기적인 커리어 관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탐색한 내용들을 토대로 석사과정 동안의 학

업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의 실제적인 효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원생들의 학업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러한 학업적응이 미치는 효과들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대학원 학문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내 대학원 교육 및 시스템의 문제들이 인식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수-학생 간 문제에 한정된 경우가 많으며, 실재를 규명하거나 탐구하려는 학술적, 정책적 노력은 미비한 수준이다(임희진 등, 2016).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연구들 이외에도, 수준 높은 고등교육의 요구와 대학원생의 증가에 발맞추어 대학원생들의 학업환경에 관한 연구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게재 논문수 등 연구 성과 및 생산성에만 집중한 대학원의 평가 기준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2). 2022 교육통계 분석자료집:고등교육 통계편. 한국교육개발원.
- 권석만 (2010). 인생의 2막 대학생. 서울: 학지사.
- 김길문, 정남운 (2004). 초보 상담자가 상담 회기 내에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 과정: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0.
- 김미란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학원 교육 혁신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중심대

- 학을 중심으로(RR2020-11). 한국교육개발원.
- 김민선, 양지웅, 연구진 (2016).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의 진로선택과 대학원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1), 191-216.
- 김승정 (2017). 인문사회과학 전공 박사과정생의 학문적 정체성 발달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연구, 35(4), 317-345.
- 김승정 (2019).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상호작용과 지도 유형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7(3), 59-82.
- 김승정 (2021). 국내 대학원 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9(3), 219-241.
- 김영섭, 김병주, 김진영, 박호범, 이영, 이정미 (2010). 대학원 재정지원 개선·통합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2010.
- 김영재 (2015). 대학원 석사과정과 석사학위 실태 분석에 관한 소고. 정책개발연구, 15(1), 191-214.
- 김영천 (2012). 질적연구에서의 글쓰기 작업-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445-1484.
- 김종영 (2008). 글로벌 문화자본의 추구: 미국 유학 동기에 대한 심층 면접 분석. 한국사회학, 42(6), 68-105.
- 김종영 (2015). 지배받는 지배자: 미국 유학과 한국 엘리트의 탄생. 파주: 돌베개.
- 김형관, 이석열, 손희권, 신봉섭, 이은구, 김겸훈, 노명순 (2005). 전문대학원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1), 375-396.
- 남궁지영, 송승원, 최유리 (2022). 2022 한국교육중단연구 한국교육중단연구 2013(X): 조 사개요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박미숙, 홍유나, 김영순 (2014).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스트레스 및 적응과정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40, 109-140.
- 박순용, 김아람 (2017). 공대 대학원생의 대학원 생활 및 진로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HRD연구, 12(2), 109-137.
- 성윤희, 정주리 (2019). 지도교수와 의 작업동맹과 이공계 대학원생의 우울 간의 관계: 공학전문가 목표인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3), 809-825.
- 송창용, 김승보, 민주홍, 류지영, 박주완, 손희전, 신동준, 황승록, 김혜정 (2011). 박사조사(20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창용, 오호영, 김혜정, 이은혜 (2016). 석사조사(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송창용, 황성수, 이은혜, 손희전, 신동준, 황승록, 김혜정, 김호진 (2013). 박사조사(20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신지원 (2021). 대학원생들의 온라인 학업적응과정: COVID-19 이후 입학한 석사과정생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6), 415-430.
- 신현석, 이은구, 김겸훈, 노명순 (2008).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대학원 교육의 질 만족요인 탐색. 교육문제연구, 31, 49-77.
- 오혜영, 조영미, 이은아 (2019). 여자 대학원생 조교의 직무스트레스 경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1), 155-184.
- 유경훈 (2013).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적용, 자존감,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700-



- 2706.
- 윤소정, 박귀화, 정욱진, 이상엽 (2011). 귀인성향, 스트레스, 대처효능감이 의학전문대학원생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3(3), 167-174.
- 이경아, 신혜린, 유나현, 이기학 (2008). 간편대학생활적응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상담학연구*, 9(2), 739-754.
- 이수정, 김승정 (2020).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생의 대학원 학습경험과 진로에 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1(3), 879-906.
- 이정미 (2013). 대학원 교육 운영 실태 및 발전 방안 연구(RR2013-11). 한국교육개발원.
- 임희진, 김소현, 박혜연, 김경호 (2016). 연구중심대학 석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학습경험에 대한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7(3), 379-408.
- 장승현, 하제현 (2018). 체육계열 교육대학원생의 학위논문쓰기 경험에 관한 이야기.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2(4), 49-62.
- 전재은, 이희영, 김동현, 전하람 (2018). '대학원생 지도교수 관계' 언론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교육사회학연구*, 28(4), 87-116.
- 전재은, 전하람, 이희영 (2021). 지도교수의 대학원생 지도 유형과 대학원생의 학업중단 의사: 전공계열별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7(1), 407-433.
- 정채윤, 홍아정, 이주연 (2022).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지 프로파일에 따른 학습몰입과 리라벨의 차이. *교육혁신연구*, 32(3), 49-77.
- 조명현, 나진경 (2017).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적응 간의 관계에서 기분인식과 정서표현의 조절효과. *감성과학*, 20(2), 45-58.
- 주성희 (2023). 교육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작성에 관한 조사 연구: 경기도 소재 A대학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을 중심으로. *음악교육공학*, 54, 103-124.
- 진미진, 손은정 (2021).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스트레스가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돌봄의 조절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8(3), 193-212.
- 차승봉, 박혜진 (2022).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 전공 선택 동기, 전공 만족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과학연구*, 30(3), 553-573.
- 한상연, 김안나 (2009). 국내 박사학위과정의 현황과 문제: 제도 개선을 위한 탐색적 분석. *교육과학연구*, 40(3), 265-284.
- 허민, 최은혜 (2017). 한국의 대학원생은 어떻게 공부를 지속하는가. *대학: 담론과 쟁점*, 1, 98-117.
- 허정, 이길재 (2020). '경향점수매칭'을 활용한 BK21플러스사업 참여 대학원생의 학습성과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9), 877-905.
- Aguinis, H., Nesler, M. S., Quigley, B. M., Lee, S. J., & Tedeschi, J. T. (1996). Power bases of faculty supervisors and educational outcomes for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7(3), 267-297.
- Austin A. E. (2009). Cognitive apprenticeship theory and its implications for doctoral education: A case example from a doctoral program in higher and adult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Development*, 14(3), 173-183.
- Austin, A. E., & McDaniels, M. (2006). Preparing

- the professoriate of the future: Graduate student socialization for faculty roles, In J. C. Smart (Ed.),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Vol. XIX* (pp. 397-456). Springer Dordrecht.
- Bair, C. R., & Haworth, J. G. (2004). Doctoral student attrition and persistence: A meta synthesis of research. In J. C. Smart (Ed.), *Higher education: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Vol. XIX* (pp. 481-534). Springer Dordrecht.
-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 Bean, J. P. (1980). Dropouts and turnover: The synthesis and test of a causal model of student attrition.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12*, 155-187.
- Bean, J. P., & Metzner, B. S. (1985). A conceptual model of nontraditional undergraduate student attri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5*(4), 485-540.
- Boehe, D. M. (2016). Supervisory styles: a contingency framework.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1*(3), 399-414.
- Brophy, J. E. (1998). *Motivating students to learn*. New York: McGraw-Hill.
- Credé, M., & Niehorster, S. (2012). Adjustment to college as measured by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A quantitative review of its structure and relationships with correlates and consequence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4*, 133-165.
- Gardner, S. K. (2008). "What's too much and what's too little?": The Process of becoming an independent researcher in doctoral education.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9*(3), 326-350.
- Garvin, D. A. (1988). *Managing quality: The strategic and competitive edge*. Free Press.
- Golde, C. M. (2000). Should I stay or should I go? Student descriptions of the doctoral attrition process. *Review of Higher Education, 23*, 199-227.
- Golde, C. M. (2005). The role of the department and discipline in doctoral student attrition: Lessons from four departmen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6*(6), 669-700.
- Heinrich, K. T. (1995). Doctoral advisement relationships between women: On friendship and betrayal.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4), 447-469.
- Hill, C. E. (1990). A review of exploratory in-session process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 288-294.
- Hill, C. E. (2016). 합의적 질적 연구: 사회과학 현상 탐구의 실질적 접근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J. E. Joo,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12)
- Hill, C. E., & Lambert, M. J. (2004). Methodological issues in studying psychotherapy processes and outcomes. In M. J. Lambert (Ed.),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5th ed., pp. 84-135). New York: Wiley.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Krueger, R. A. (2014).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Sage publications.
- Lewis, R. G., & Smith, D. H. (1994). *Total Quality in Higher Education*. Florida: St. Lucie Press.
- Li, J., Wang, Y., Liu, X., Xu, Y., & Cui, T. (2018). Academic Adaptation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from East Asian Countries: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ents*, 8(1), 194-214.
- Lim, H., Li, X., & Jung, H. (2019). Exploring factors associated with doctoral students' concern about completing their degree in time: A case from a research focused university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Chinese Education*, 8(2), 265-292.
- Mainhard, T., Van Der Rijst, R., Van Tartwijk, J., & Wubbels, T. (2009). A model for the supervisor-doctoral student relationship. *Higher education*, 58, 359-373.
- Martin, M. M., Goodboy, A. K., & Johnson, Z. D. (2015). When professors bully graduate students: Effects on student interest, instructional dissent, and intentions to leave graduate education. *Communication Education*, 64(4), 438-454.
- Morgan, D. L. (1996). Focus group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2(1), 129-152.
- Morgan, D. L. (1998). *Planning focus groups*. CA: SAGE Publications.
- Noy, S., & Ray, R. (2012). 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of their advisors: Is there systematic disadvantage in mentorship?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83(6), 876-915.
- Paglis, L. L., Green, S. G. & Bauert, T. N. (2006). Does adviser mentoring add value? A longitudinal study of mentoring and doctoral student outcome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7(4), 451-476.
- Pascarella, E. T. (1980). Student-faculty informal contact and college outcome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0(4), 545-595.
- Ruud, C. M., Saclarides, E. S., George Jackson, C. E., & Lubienski, S. T. (2018). Tipping points: Doctoral students and consideration of departure.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Research, Theory and Practice*, 20(3), 286-307.
- Vaughn, S. R., Schumm, J. S., & Sinagub, J. M. (1996). *Focused group interviews in education and psychology*. California: SAGE Publication.
- Weidman, J. C., & Stein, E. L. (2003). Socialization of doctoral students to academic norms.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44(6), 641-656.
- Weidman, J. C., Twale, D. J., Stein, E. L. (2001). *Socialization of graduate and professional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A perilous passage?*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Yuan, R., & Zhang, L. J. (2017). Exploring student teachers' motivation change in initial teacher education: A Chinese perspective.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61, 142-152.
- Zhao, C. M., Golde, C. M., & McCormick, A. C. (2007). More than a signature: How advisor choice and advisor behaviour affect doctoral student satisfaction.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31(3), 263-281.
- 원 고 접 수 일 : 2023. 11. 27.  
수정 원고접수일 : 2024. 03. 08.  
최종 게재결정일 : 2024. 04. 25.

## Research on the Academic Adaptation of Graduate Students Us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Focusing on Facilitators and Barriers

Jimin Han      Jeong-Gil Seo      Joung-Soon Ryong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explored facilitators of and barriers to academic adaptation among master's students. It was conducted using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23 participants who had completed their master's degree programs.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12 categories and 30 subcategories of facilitators and 11 categories and 28 subcategories of barriers. Facilitators included various activities, namely, preparation, goal-setting and execution, managing academic motivation, and interacting with graduate colleagues, including peer cooperation, senior support, and professorial guidance. Further facilitators were academic activities both inside and outside of the laboratory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system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not only effectively managing individual academic tasks but also interpersonal interactions and support to academic adaptation. Barriers to academic adaptation included a lack of experience and capacity, research and writing difficulties, professorial guidance methods and attitudes, limited interaction with colleagues, laboratory culture and systems,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systems. In unfamiliar and uncertain graduate programs, the primary challenge is conducting research and writing papers due to a lack of research abilities and experience. Students faced difficulties arising from inadequate professorial guidance and struggles focusing on studies due to various factors. By identifying facilitators and barriers to master's program academic adaptation, we can develop insights about how to quantitatively investigate graduate school academic adaptation. Furthermore, these findings can be used to enhance the quality of graduate education and develop graduate student support.

*Key words* : graduate school academic adaptation, focus group interview, facilitators of academic adaptation, barriers to academic adaptation